여우의 비밀

(행9:32~43)

32.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34.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여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943년에 출판된 이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책이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입니다.
어디로부터 날아왔는지 모를 장미 씨 하나가 떨어져서 아름답게 장미가 핍니다.
어린왕자는 아름답지만 교만한 이 장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별을 떠나게

되면서 다른 별들을 전전하다 지구에까지 오게 됩니다.
지구에 와서 여러 종류의 만남을 갖게 되는 가운데 여우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 어린왕자가 자기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몰랐던 측면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별로 돌아가게 되는 어린왕자와 여우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여우와 어린왕자가 헤어지기 직전에 여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을 어린왕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비밀을 어린왕자에 나온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잘 가세요! 그러면 내 비밀을 말해주지요. 내 비밀은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보아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여우가 알고 있고 갖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바르게 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여우의 비밀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순회전도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회전도 사역의 장소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인 지중해 연안 쪽이에요.
룻다와 욥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얼 말해주는가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경에 갇혀 있다가 핍박이 주어지면서 이 경계가 깨지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떠나게 된 일도 있고, 드디어 사도 중에 수장인 베드로가 그 유대지경을 넘어서서 이 지중해 연안 쪽까지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그 의미가 이 유대지경에 갇혀 있던 복음이 이방지역으로 확장되어가는 과도기의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오픈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의 복음전파를 베드로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이 있어요.

룻다에 살고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베드로가 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 기적을 보고 35절에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룻다에 베드로가 와있다는 얘기를 듣고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욥바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죽었던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내는데, 살려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를 중풍병에서 고친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도르가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서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새삼 우리의 주목을 끈다는 것이냐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오로지 첫 번째로 궁극적인 관심이 사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룻다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나 깨나 사업만 생각하고 사업에 전심을 다 하던 사람이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낫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마음이 사업을 떠나서 주님께로 왔다는 얘깁니다.
자나 깨나 자식을 잘 길러보겠다는 엄마가 애니가가 중풍병에서 낫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자식을 떠나서 주님께로 왔다는 이야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심장을 꺼내서 드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내 자식에게 심장을 다 주고 있었던 엄마가 그 심장을 자식에게서부터 떼 내서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 붙어있던 마음들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그 붙어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게, 뭐 그렇게도 새삼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새삼스럽게 이게 주목을 끄느냐?
오늘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굉장한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가 행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시면서 고치시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을 때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지만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 썩어가는 시체를 일으켜 살려내셨는데, 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행한 것을 다 기록하려면, 그때는 책이라는 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썼으니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썼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자신조차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오늘 룻다와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았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우의 비밀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영적 상황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생애 때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가운데

행하셨고, 베드로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지 않으면서 베드로 안에서 행하십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그림이 50여 가지 나오는데, 그 그림 중 가장 인상 깊은 그림이 모자 그림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길들여진 어른들의 눈에는 모자로 보이는 그림.
그런데 그게 실지로는 모자가 아니라 보아 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보아 뱀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른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셔서 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어서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을 행할 때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우리 육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기적을 아무리 행하셔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전부 예수님의 기적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육안으로 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안으로 보이는 가운데서 기적을 행할 때는 대체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어 간 것입니까?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바라볼 때, 육안으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내가 봉착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봅니다.
'아, 이 문제도 예수님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 '아!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내 소원이 성취될 수 있겠구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의 꿈을 보게 되고, 내 소원을 보게 되고, 내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고 육안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대할 때는 실지로 점점 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

고, 오히려 내 꿈을 향해 더 돌진하게 되고, 내 문제 해결을 향해 더 확신을 갖고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표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지요.
어머니가 집에서 늘 육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육안으로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으로는 밥을 봅니다.
'엄마, 나 라면 끓여 줘!'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나 ㅇㅇ해줘!'
육안으로는 엄마를 보고, 마음으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동네분들과 함께 2박 3일로 벚꽃구경을 갔습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때 이상하지요?
배고파서 밥 생각이 나는데, 그 밥보다 먼저 엄마가 보입니다.
마음으로 엄마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밥에서, 라면에서, 엄마가 챙겨주던 양말에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 돌아왔다는 이 얘기가 우리의 일이 되려면 - 그렇게 돼야 신앙인인 것인데 - 지금 우리 마음이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찾고 통성기도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려도,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내 자식의 문제해결이고,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건강이고,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내 사업이라면, 아직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우의 비밀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지 보인다는 이 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 교회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보라고 해요, 비전을 가지라고 해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뜻하거든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는 얘기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인데,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실체와는 그 거리가 멀어져가게 됩니다, 내 꿈에 몰두하고 매진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관찰이 됩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돈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저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저 교회를 부흥시켜보겠다고 교인 숫자에 마음이 다 가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가있는지 보이잖아요?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깁니다.
실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천국에서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그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가 내 첫 번째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돌아간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내 마음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잡아당길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식이 잡아당길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죽었는데 무슨 건강 걱정이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의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께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니라'

여러분, 여우의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들을 보고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낼 때, 십자가에 걸려있는 약속대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이지 않는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 속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여우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겁니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내 사업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애인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떠나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